10

6월 셋째 주

셀그룹교재 당신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인가?

로마서 5장 9-10절 (3)

● 읽을 말씀 롬 5:9-10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본문이 견인의 교리를 다룬 것이 아니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변수와 본문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주장이 왜 비성경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4)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변수!

롬 5: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u>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u>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 이 문구의 "그" 는 하나님인가 예수님인가?

표준새번역에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가능한 해석이고, 구조만 본다면 더 옳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전반절의 "그의 아들" 이라는 표현에 나오는 "그" 가 일관성 있게 사용되려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되고, "살아나심" 의 원어는 부활이 아니라 "생명"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죽으심" 과 "살아나심" 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9절에서도 앞뒤 모두 예수님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도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이 문구는 '생명 안에서' 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인가?

개역개정성경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는 의역이고, 원어를 직역하면 "생명 안에서" 입니다. 둘 다 문법적으로 가능한 번역입니다. 먼저, "생명 안에서" 가 옳다고 가정하고 설명해보겠습니다. 헬라어 "엔" 은 "~안에" 라는 뜻이지만, 공간적 의미로 쓰일 때는 "~에 의하여" 라는 뜻도 가집니다. 또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는 9절의 "그로 말미암아" 의 병행이므로 수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기초해볼 때, 이 구절의 대상은 의롭다 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후에도 이렇게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환난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소망을 이룰 수 있는데(3-4절), 바울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올바로 반응할 것을 당연시하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10절에서도 부활이 주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당연시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하는 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를 "생명으로 말미암아" 로 이해하더라도 궁극적인 구원이 무조건 확실하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3) 이 문구는 부활이 주는 생명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호인가?

이번에는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가 옳다고 가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문맥 안에서 전반절의 '그의 죽으심' 과 후반절의 '그의 생명' 이 대조되고 있으므로 생명을 부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이 옳을 경우, "부활로 말미암아" 는 이미 설명해드린 대로 부활이 주는 새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호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부활이 주는 새 생명이 주어졌어도 계속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6장과 8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5장 10절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를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생명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더욱 궁극적인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한다면 이와 모순입니다. 더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상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호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가 부활 자체만 가리키는 것 같고 변호까지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반절의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뜻하는 것처럼 이것도 부활로 말미암은 효과를 표현한 것입니다. 더구나 전 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호로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5) 제발 유명 설교자의 그럴듯한 설명에 속지 말라!

세계적인 강해설교자 로이드 존스는 본문을 강해하면서 히브리서 7장 22-25절과 요한일서 2장 1-2절에 근거하여 '구원받은 이후 죄를 짓는다고 버림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고 변호해주시므로 자백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은 확실하다.' 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

다. 그의 주장은 매우 그럴듯하지만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본문은 심판 날 받게 될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가 내세운 성구들은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언제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요한일서도 구원받은 후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면 예수님의 변호를 들으시고 용서해주신다는 내용일 뿐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둘째, 그는 히브리서 7장 22-25절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항상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단언했지만, 이 구절들은 자백이 아니라 처음 믿을 때 받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어떤 학자들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히 7:25)에서 "온전히" 라는 단어를 근거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쪽으로 몰아갑니다. "온전히" 의 헬라어 "판텔레스" 는 "온전히" 와 "언제나"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먼저, "언제나" 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 근거가 근접문맥인데, 이 구절들은 "항상" (혹은 영원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17, 21, 23-25절).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죽음 때문에 항상 있지 못한다고 했고(23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시므로 그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4절). 그런데 25절의 "그러므로" 가 보여주듯이, 바로 그것을 근거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있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제사장이 갈리긴 했어도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온전히" 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물의 피는 죄를 온전히 사하지 못했습니다(히 10장). 반대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 양심을 깨끗케 합니다(히 9:14). 그 결과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온전" 은 온전한 죄 사함과 그로 인한 구원을 뜻합니다. 때문에 25절의 "판텔레스" 를 "온전히" 로 번역해도 단지 구원을 뜻하고 궁극적인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편, 진짜 문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히 10:14).**"입니다. "영원히" 라는 단어를 통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죄를 없이 한다' 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없이 한다" 에 쓰인 원어는 세 가지인데 "제

거, 옮김”, “빼앗다, 없애다”, “제거하다, 근절하다”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죄 사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보면 “죄를 없이 한다”와 “온전”이 같은 뜻입니다. 나아가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와 같은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히 10:15-18). 이를 통해 이 표현이 구약의 제물과 달리 예수님의 피는 죄를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넷째, 로이드 존스는 요한일서 2장 1-2절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므로 죄를 지어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빛 가운데 행하며 말씀대로 살다가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다음 구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구원받았으니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다섯째, 로이드 존스의 주장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있는 대제사장(대언자)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종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습니다. 더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자들 속에는 믿는 자들이 포함됩니다(히 6:4-6, 요일 5:16). 따라서 우리에게 항상 있는 대제사장(대언자)이 있으니 구원 받은 후에 죄를 짓더라도 절대 버림받지 않고 안전하다는 로이드 존스의 주장은 매우 편협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유명세만 믿고 엉터리 주장에 미혹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나눔과 적용

의롭다 함을 받은 자라도 습관적인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경고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바르게 분별된 진리를 듣고 행함으로 누리게 된 신앙생활의 변화들을 나누어 봅시다.